## ■ 그림 여행



## 금붕어 (Goldfish c. 1912)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 (캔버스에 유채 146 x 97 cm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를 생각하면 언젠가 보았던 그의 사진이 떠오른다. 작업실 실내에 동그란 안경을 쓴 대머리 화가가 잠옷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통통하게 살찐 몸집을 의자에 푹 파묻고 손에는 하얀 비둘기를 들고 사랑스럽게 들여다 보고 있다. 그 사진 을 보면서 참 천진난만한 화가 할아버지구나라고 생 각했다. 그 동심 어린 모습처럼 그의 그림들은 기쁨과 호기심에 가득차 있다.

정원 가운데 놓인 이 금붕어 어항은 어린아이가 알 록달록 그린 것 같은 그림이다. 그러나 모든 색깔은 한 데 어우러져 시각적인 평화와 조화를 나타낸다. 그림 속 배경의 검은 색은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과 같이 동일한 하나의 색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어항 테두리 한가운데 한 줄로 살짝 입혀진 파랑은 그림 전체를 하 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화려하면서 도 소박한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눈길이 한 곳에 머 물지 않고 그림 안을 여기저기 돌아보게 된다. 어항 속 에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금붕어처럼.

마티스는 1911년에 아프리카 모로코로 여행을 간다. 그곳에서 모로코 사람들의 평화롭고 낙천적인 생활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모로코 사람들은 여럿이모여 앉아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며 금붕어 어항을 들여다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어항 속에 노니는 금붕어의 모습이 낙원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 온 마티스는 자신의 정원에서 금붕어 어항을 그린다. 꽃과 식물, 물과 정원 같은 모로코 이슬람 미술의 요소들이 온전히 반영된 그림이었다. 무엇보다도 분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낙원을 찾기 위해 그린 그림이었다.

금붕어가 낙원의 상징이라고 하니 세상에 때문지 않은 어린이들이 금붕어를 좋아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마티스는 꽃과 동물에 둘러싸여 살며 온갖 식물이 가득한 정원에서 금붕어를 그렸다. 혼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낙원을 찾고자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낙원을 찾아보라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어여쁜 색깔들과, 수분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정원의 모습, 그리고 그 한가운데 헤엄치는 금붕어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 그림을 보는 순간만큼은 잡다한일을 다 잊고, 절로 미소를 띄며 '어디 보자' 하는 느 긋한 마음이 되어 그 풍성한 색채의 향연을 즐기게 된다. 그만하면 짧은 순간이나마 자신 만의 낙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

《김동백》

## 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해결해 드립니다



철대문 제작/설치 및 펜스 설치 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플러밍, 페인트, 타일, 에어컨 LED Light, Slipfence



하우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Metal Door, 콘크리트, 방범창살, 핸드레일



